



사람마다 불교도서관 만들자

한국불교가 달라지고 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정제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거나 하드웨어만 치중하는 경향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불교가 여성화·노령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 대안 하나로 '사람마다 도서관'을 적극 제안한다.

사람마다 도서관은 첫째, 스님들의 인식과 수행에 끊임없이 자극을 줄 것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책과 답을 쌓고 산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적 요인이 있었지만, 스님들은 성불을 향한 수행자이면서 대중을 이끌고 지도할 스승이기도 하다. 새로운 연구 성과, 지식, 경험들을 충분히 나누지 않는다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량에 책 많으면 수행도 활발 지역민 문화공간...포교 지름길

둘째, 신도들을 진정한 불자가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다. 불자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절에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이상한 늘어나는 기현상이 만연해 있고, 절 밖에 나오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인지 모르는데 뭘 기대하겠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스님들의 손길이 모두에게

적절하게 미칠 수 없다. 불자들이 언제나 불법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비록 규모는 작겠지만 사람 도서관을 잘 활용한다면 주변 주민들과 밀접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다. 경내 여가저기에서 온 가족이 책을 보아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겁고 정겹다. 사실 이런 도서관은 사람이 밀집돼 있는 도심 포교당에도 적합할 것이다. 또 지방 소도시나 농촌 등의 사찰은 소외 계층이랄 수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적 안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질의 불교 서적이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래 지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불교 학술서 시장은 거의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쉬운 책, 보기 좋은 책들에 밀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술서가 사라지면서가 사찰의 구미에만 맞는



미 있고 가치 있는 학술서가 사라지면서가 사찰의 구미에만 맞는 정보와 지식 공급이라는 심각한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해 양서를 꾸준히 구입한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불서들이 기획, 출판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찰도서관은 불교가 불교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이 모이고 다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되는 그런 저수지 말이다.

■ 김시열(도서출판 운주사 대표이사)

보고 듣고 느끼고... "짱이에요"

문화재모니터링·시청각교육 등 청소년 포교 중심 부상

파라미타·불교교육연합 '호평'

"학교 교실에서 때론 집 근처 문화재와 인터넷 게임 등으로 부처님 가르침 배워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체험하는 문화재모니터링'과 불교연합회의 '불교시청각 교육' 등 불교문화 활용 프로그램들이 높은 호응을 받으며, 청소년 포교 활성화 위한 새로운 포교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모니터링은 청소년들이 인근 지역의 사찰 및 문화유적 등을 찾아 장소, 코스, 문화재 현황과 느낌 등 세부항목을 점검하며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는 프로젝트다. 불교시청각 교육은 컴퓨터와 프로젝션 TV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불교인성교육과

전통문화 체험하기, 이웃 종교이해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학습방법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사찰문화재와 음악, 미술 등 불교 전통문화와 중·고등학교 교과활동시간에 활용돼 청소년들의 관심을 자르는데 불교와 사찰문화로 이끌고 있다.

불교문화가 가진 역사성과 문화·정신적 가치 등이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중시하는 현 교육정책과 맞물려, 창의적 재량활동시간과 특별활동시간 등 교과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포교의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재 보호 활동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역시 올해 초 불교교육연합회와 함께 '불교시청각 교육'을 발간하고 일선 학교들을 중심으로 무료 배포하는 등 불교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소년포교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포교방안 제시를 위해 전국교법사단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간화선(가정)'을 연구 중이며, 내년까지의 사찰과 학교 등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주 단위 월 단위 세부 포교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파라미타의 문화재모니터링의 경우 '문화재 지키기 활동'이라는 새로운 청소년 봉사활동의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파라미타는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으며, 문화재모니터링 대상을 중립학교를 비롯한 일반학교, 지역 청소년단체들로 확산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교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위빠사나 수행토론회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방)는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을 위한 네 번째 수행법 토론회 '위빠사나 수행과 대승불교의 지관수행'을 7월 27~28일 양일간 남양주 불암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 스님의 '상좌불교의 위빠사나 이해', 경전연구소 김재성 소장의 '현대의 위빠사나 수행', 동국대 지장교 교수의 '천태의 지관론', 동국대 강사 임승택 씨의 '경전에 나타난 위빠사나', 동국대 강사 이현욱 씨의 '용수의 지관론' 등이 발표됐으며 김일권, 심재관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미산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위빠사나 수행을 다루고 있는 <대념처경(大念處經)>과 주석서 <청정도론(淸淨道論)> 등의 문헌들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얼마나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 불교의 수행방법을 더 중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위빠사나 수행법의 선택적 수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해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용수 기자



"삼보에 귀의합니다" 육군 제2훈련소 호교연무사는 7월 25일 훈련병 수계법회를 열었다. (사)군불교진흥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3천여 장병들은 계사 범문종 중장 장각 스님에 사선-고영배 기자

불교호스피스 식사과정 개설 동국대 불교대학원 올 가을부터

호스피스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돼 그동안 실무위주로만 교육돼 오던 불교계 호스피스의 학문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

은 오는 2학기부터 기존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전공 이외에 호스피스전공을 신설하고 석사과정, 지도자 과정 신입생을 7월 30일까지 모집했다.

강의를 맡을 교수진은 동국대

간호학과 김영희·한영란 교수, 불교복지연구소 소장 윤원숙 박사 등이며, 개설과목은 호스피스 총론, 말기환자 간호, 사별가족관리, 임종의례 실습, 호스피스 실습, 기본 간호학, 정토학, 임종론 등이다.

보광 스님은 "불교 호스피스 전문과정은 믿음과 자비로 종교적 구원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02)2260-3097

조용수 기자

"본시주지 후보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결정"

조계종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개정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자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명시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어)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개정(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3조 후보자 자격사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총무원의 총무부와 호법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홍선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 부산 범어사 주지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범어사 산중총회(주지 후보자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권 없음 확인 및 주지 후보자 선출 확인 심판청구에 관한 건'에 대해 법원위판기에 지난 3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또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됐다.

남동우 기자

北 종교인구 4만명 불교신자는 1만명

북한의 종교활동 인구는 4만여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불교신도는 1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조종연구잡지인 '조신' 8월호에 따르면 북한에는 불교 신자 1만 명에, 개신교와 천도교도 각 1만 3천명, 천주교 신자 3천명이 활동 중이다.

강유신 기자

본지 484호 3면 종교실태조사 분석기사 중 조사의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를 95%와 ±2.4%로 고집한다.

빙의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최면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교육내용

1. 최면이란 및 실기 : 최면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제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 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5. 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제 삼자를 통한 원격 빙의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제삼인 방지 영치유법.
6.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한다.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www.hypnos114.com

과정을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음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하는 모습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00사00 합장



대영 임재형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이카데미 회장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부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및 디스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이카데미

[특 전] 한국최면이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8월 18일 / 25일 / 9월 1일 / 8월 / 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외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